

諸문화권에 있어서의 철학적 注釋

조 가 경*

서양 철학사 전체를 가리켜서 플라톤 철학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철학자가 화이트헤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사에는 나타난 인물들도 많고 문제도 허다하고 저술들도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 독립적인 큰 작품이 없고, 플라톤 철학의 각주, 즉 foot note 에 화이트헤드가 불과하다고 화이트 헤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석학인 화이트헤드가 말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느정도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주는 주석의 한 형태이고 주석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 많이 논의되고 있는 해석학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말은 주석이 무엇이냐 하는 정의의 문제가겠습니다. 원본, 원작을 우리가 맨 왼쪽에 놓을 경우에, 그 정반대의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해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다름이 아닌 주석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석과 해석의 차이는 무엇인가? 원작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축자적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고르게 해석하며, 그 뜻을 이어받는 경우, 충성 내지는 여기에 대한 복종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주석이라고 하며, 좀 익살스럽게 얘기하자면, 주석과 해석의 차이는, “difference between deference and difference”입니다. deference라고 하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differences는 해석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해석은 모름지기 원작에 대해서 일견을 제시하고 이것과 좀 다른 문제를 제기해서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는데에 해석의 자격이 있으며, 이와는 달리 주석은 그와 같은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공손한 태도로 여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deferent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 ‘공자 알’이라고 할 때에, 축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한다고 하면 여기에 전제되고 있는 것은 ‘선생님은 틀림없다’, ‘그가 한 말씀은 한 마디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의식에 전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볼 때에 화이트헤드가 생각하듯이 플라톤만큼 그 작품 내지는 사상이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방대한 주석의 문헌을 들춰보면,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쪽이 더 많은 주석을 낳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별명은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식자의 아버지”, “The father of those who know”입니다. 이런 연고로 그는 박식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나중에 주석이 이 역사에 있어서 태어나게되는 전제조건으로서

* 미국 버팔로대학 철학과 교수

다섯가지 내지 여섯가지 이유를 들게 되겠는데, 그 속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의 사상이 중요한 것 이외에 ‘그의 사상의 폭이 넓었다, ‘거의 백과사전적인 모든 분야에 대한 광범한 그리고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는 데에 귀착될 것입니다.

이 해석보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태도로 나서는 주석의 경위에 관해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이것은 제도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구라과 대학제도, 세미나제도, 특히 철학과 신학의 세미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에 있어서 비로소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들의 말씀, 그의 사상을 후세에 남기고 또는 다른 문화권에 이것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주석의 필요가 생겨나는 것이며, 여기서 그 사상자체의 동력에 의하여서 제자들이 마지못해 그 힘을 더욱 해석하는 경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도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기위해 스승들이 제시하는 논문제목, 그리고 그 논문제목에 포함되고 있는 작가, 그리고 그 작가가 쓴 작품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대학원생활 내지는 그 이후에도 주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생활을 한다고 할 때, 정말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주석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주라고해서 foot note 를 쓰지만, 그것은 결국은 권위있는 사람의 작품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선생님이 원하는 것, 자기 지도교수가 원하는 그와 같은 해석을 거기에다가 담아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없는 문화권에 있어서는, 지금 나중에 이야기할 부분을 간추려서 먼저 얘기를 한다면,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큰 나라들과 그 문화권들이 다 똑같은 정도로 고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석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영국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주석에 대한 이해가 우리보다도 훨씬 덜하고, 그 나라에 있어서 위대한 사상가라고 내세울만한 사람이 주관적으로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또는 기타의 나라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사회 내지 사회학적으로 볼 때에 이와 같은 문화권에 있어서의 큰 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세미나의 소산이 결국은 주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적인 제도 (Public institution)로서 대학들이 갖고있는 주석의 제도이며, 그 밖의 개인적으로 어떠한 원작을 스스로 이해하기 위하여, 여기에 대한 토를 달고 공부하는 경향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바와 같이, 주석을 달기 위해서는 그럴싸하게 권위가 있고 그 사상이 중요해야 합니다.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모든 책 가운데서 가장 성스럽다’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oly Bible이라고 할 때, 이 ‘Holy’ 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존중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또는 사회적인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 있어서는 고전 숭상의 사상이 특히 두드러져 있습니다. 동양 사회가 옛날부터 그러했고, 유교의 전통 또는 도교나 그 밖의 사서오경들을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시 해온 것이 동양의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 숭상의 사상을 계속 물려받아 왔고, 여기에 덧붙여서 스승들 또는 대학 제도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요구조건, 예를 들면 학위 논문을 쓴다든가 시험에 통과한다든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동양의 현대화에 따라서 대학제도가 서양에서부터 도입된 이후에만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어서

옛날에 성균관과 같은 제도가 있었고, 또 과거 시험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가 되기 위해서 꼭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등용문이었습니다.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고전을 배워야하고 이것을 암송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아마 우리의 혈관속에는 고전을 배워 이것을 숭상하고 문자 하나 하나를 틀리지 않게 해석하고자 하는 태도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이 세계의 주석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를 발로 그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도가 아주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영미계통, 그 중에서도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코블란드, 그리고 같은 독일어권에서도 독일과는 다른 오스트리아 등등의 나라에 있어서는 이 고전을 숭상하는 위대한 철학자를 독자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태도가 과히 깊게 뿌리를 박고있지 않습니다. 주석 가운데에 남의 사상을 주석하는 것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석한 것, 그것 자체를 주석하는 전통도 있고 그리고 또 원작 자체를 주석하는 것, 예를 들면 단테의 『신곡』 같은 것, 또 현대 철학에 있어서 예를 들면 비트겐슈타인의 『트락타투스』 같은 것도 그 구조를 가만히 보면 자기가 일정한 명제를 추상적으로, 전반적으로 제시한 다음에 여기서 주1, 주2, 주3, 주4... 이렇게 붙혀 가면서 스스로 주석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의 서술방식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과 종교에 있어서 주석이라는 것이 예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특히 그 주석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은 고전입니다. 그러한 고전은 희랍어, 라틴어로 쓰여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석에 있어서는 첫째 조건은 그 쓰여진 원문이 사상적으로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 언어가 지극히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를 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희랍어하고 라틴어는 중세 이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고 따라서 중세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주석활동이 있어났고, 르네상스 이후에 있어서는 고전, 즉 호머에서부터 로마의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작품에 대한 주석이 굉장히 많이 쓰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고전 숭상의 사상은 이와같이 구라파에 있어서 희랍초기부터 - 아까는 플라톤이라고 했지만 - 더 소급해서 호머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머의 사상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주석의 대상이 될만한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희랍어처럼 어려운 원어로 되어있다는 것 이외에도 그것이 희랍민족, 국민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사상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내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통일관 또는 민족의 자기 자체에 대한 숭상의 감정과 같은 것이 그 원천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머의 작품과 같은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여러가지 주석을 통해서 전파되었으며, 그 전파 범위는 희랍민족에게만 달한 것이 아니라, 희랍어를 배우고 희랍적인 사상을 흠모하는 많은 여타의 민족에게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석 발생의 여섯가지 조건을 생각한다고 할 때에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작이 난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문장으로 쓰여져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며, 또 원본은 도서관에 그것도 아주 갇혀 있어서 아주 쉽게 볼 수가 없

다든지, 그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쓰여져 있는 문체라 할지라도 상당히 단편적이고 일부는 분실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의 뜻을 정합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난해성이 제일차적인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랍사람이면 회랍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 중국 사람이면 중국사람 전체에 대하여서 의미가 크고 민족적 국가적 종교적인 의미에서 커다란 지침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덕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지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에게 - 그 예는 아까 들었던 성경, 구약성서, 신약성서와 같은 것이 포함이 되겠지만 - 지침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백과사전적인 의의가 있는 것인데, 반드시 과학적, 인문과학적 지식에 있어서 백과사전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경험, 그때 그때의 사회 제도면에 있어서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언제나, 어느때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의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백과사전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언어 자체가 매우 정확하며 다르게 해석되서는 안되며 독자적으로 완전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요구 조건도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문자로 쓰여진 밝힘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피타고라스 확대같은데 있어서는, 학생들이 논란을 하다가 쟁점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결국에 가서는 선생님의 말씀에 그 해결의 표준을 구하는 것인데, 그 때에 있어서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으로서 더이상 논란은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이 주석의 거의 본질로 되어있지만, 우리가 조금 거리를 취해서 비판적인 각도에서 본다면, 학생들이 석사나 박사의 논문을 쓸 때에 아무도 독자적으로 정확하게 해석, 주석을 붙힌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독창성을 보여야 하며, 비판적인 정신을 보여야 한다', '다른 각도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다든지 하는 평을 하게되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창조적으로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중간적인 수련 단계로서 아마 주석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보통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 충실히하고, 이럴때 있어서 선택할 텍스트로 아무나 그저 닦치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인간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적으로 거기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커다란 사상가, 그와 같은 커다란 작품을 우리가 택해서 독자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차차 독립적인, 비판적인, 창조적인 자기 서술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아마 우리의 학문의 목표일 것입니다.

이 문화적인 민족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가치를 지니려 한다는 것 이외에 백과사전적인, 보편적인 인문 일반에 통하는 유용성을 지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이 고대 숭상의 사상이 그 사회의 전제조건으로서 주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상고의 정신을 가져왔고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공부한다고 하는 옛사람의 글을 그대로 배우고 외우는 것, 또 신학문이라고 해가지고 차차 서양의 학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과학 특히 자연 과학도 있고, 비판이라는 것도 있고, 고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정도 거리를 취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지만, 아마 수천년동안은 고전의 권위에 거의 압도당할 정도로 그것을 숭상했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밖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숭상의 사상말고도 권위를 존중하는 사상이 어떤 사회에 있어서는 다른 사회에 대해서 두드러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고대를 숭상과 권위를 존중은 아마 왼쪽 발하고 오른쪽 발처럼 서로 균형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한쪽에 있는 사회에서는 저쪽도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고대를 숭상하고 선인 선친들의 사상이 틀림이 없고, 많은 것을 우리보다 깊이 보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퇴행적이고 진보적이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더 배워가지고 창조를 한다는 의욕이 부족한 사회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왜 특정한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했고, 다른 사회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의 제한된 시간 가운데서의 고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학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영국에는 그러면 대학제도가 없었느냐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옥스포드나 캠브리지의 차라리 구라파에 있는 다른 학교보다도 전통도 오래될 뿐만 아니라, 고전 연구도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에서 권위있는 선생이 권위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학생으로 하여금 논문을 쓰게하고 그 논문을 쓰는 일에 독자적인 주석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요구조건이 영국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교의 제도는 우리가 듣기로는 이와 같이 세미나 강의실에서의 강의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대일로 젊은 선생과 학생들이 같이 살면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도 서로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문제를 취해서 토론한다고 할 때에도, 어떤 커다란 원천이라고 할 작품을 취해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석한다기 보다는 정식화되고 논리화된 방법적인 것, 어떻게 처언을 하나? 어떻게해서 이 논리적인 해명을 하느냐 하는 결국 언어분석적인 철학으로 이것이 개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대학의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 첫째 이유였고 또 하나의 이유로서는 교단 철학자들이 드물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름난 구라파의 철학자들을 생각할 때에, 물론 라이프니츠나 스피노자, 데카르트와 같은 17C에 있어서의 합리주의자는 예외였지만, 18C에 있어서 칸트, 피히테, 셸링, 헤겔 그후의 마르크스, 현대의 후설과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구별된 인간이라는, 구별된 학자라는 구별된 학자라는 구별된 천재라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술어상으로는 “Hagiological”, “Hagios” 라는 것인데, “구별되 자아” 라는 뜻이겠는데, 보통 사람과는 다르며 어딘지 날 때부터 후광을 받고 태어나고, 그들의 두뇌도 비상하고 그들이 말한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본이 됩니다. 이와 같은 권위를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작품은 객관적으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사상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크, 흄, 밀, 스펜서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정의 인간이었고, 또는 정치가였고, 입법가였고, 교단에서 교편을 잡았다는 것은 특히 예외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자를 길렀고 그 제자로 하여금 자기의 사상이나 다른 커다란 작품에 주석을 하도록 시켰다하는 일이 별로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로크는

전형적인 영국의 사상가 가운데서도 걸출한 사람이어서 아마 상당히 많은 수의 주석을 낳기는 했지만, 그러나 독일 관념론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사상가나 19, 20C에 들어와서 아직도 이 구별된 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류의 하이데거 그리고 후설과 같은 사람에 비하면 로크는 평범한 상식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영국 사람들의 소위 멘탈리티라고 할까,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아마 주석을 가했다고 하면 마그나카터와 같은 개인의 작품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위태로울 때에 호소하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가 요사이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에다 달고 있는 마스코트와 같은 의미로서 이것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장식으로 지니고 다니는 그러한 정도의 일은 있어도, 어떤 개인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 '개인의 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틀림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질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일인것 같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냉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가 간헐적으로 약 30년 지나면 또 태어나고 50년 지나면 태어나는 것으로 기대하는 버릇이 붙어서 실제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비슷한 작품을 썼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주 받들어서 추켜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영국의 냉철한 개인주의적 사상가가 볼 때에는 20C에 들어와서 독일의 철학자로서 이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후설이나 하이데거가 그런 류의 사상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 아주 존중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사상가에 대해서는 일부러 더 깎아내리려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비해서 일본 그리고 한국은 원래 그 대학제도에서부터 구라과 특히 불란서에서 본을 받아서 그 제도를 받아들였다고 생각되는데, 그 제도를 받아들였을때 함께 들어온 것으로서 그들의 전통에 있는 사상가를 묵수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마디, 한마디 빼놓지도 않는 점에 있어서는 독일이나 불란서에 있는 학자들보다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특출하다고 생각되는 학자들에 대해선 말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그런 사상가로서 아마 미시다 기타고와 같은 학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른 학자들보다 사상적으로 볼 때에 뛰어나고 한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동양에서 여태까지 태어난 현대의 형이상학자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서양에서 누구누구에게 비견할만한 중요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또는 일부의 독일사람들이 말하는 정도의 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확실히 이 미시다와 같은 사람을 구별된 학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쓴 작품의 자자구구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지 않고 주석만 하려고 하며, 때때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발표할 기회를 주지않는다는 얘기를 최근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전 숭상사상과 준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선생, 그리고 그 선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쫓아가는 기풍, 어떻게 말하면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며, 아부하는 학풍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의 한 부분으로서 선배나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하고 다릅니다. 독일에서 아까 얘기한 것은 고전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사상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지 독일에서 현재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를 들자면 졸업이

한 해 먼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5년 더 선배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하는 기풍이 독일에는 없습니다. 차라리 상당히 위대한 사상가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상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이나 한국의 학계에서는 자기의 스승 또는 선배에 대해서 상당히 이중적인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학자들이 와서 학회를 개최했었는데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던 제자와 캐나다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제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스승의 사상을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에 남아 있는 제자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캐나다에 있던 학자는 (캐나다와 미국의 학풍은 비슷하다)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료였고 한국에 남아 있던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면 모가지다' 라고 얘기했고, 즉시 응수해서 캐나다에 있던 '학자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안하면 모가지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배, 스승에 대해서 비판을 꺼려하는 것은 아마 고쳐져야 할 풍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경험한 일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경동에서 어떤 학자가 오사카로 와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학자가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15분쯤 늦을테니까 미안하지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여럿이 모여 있는데 15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중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과 순서를 바꾸어서 시작하겠다 했더니, '그것은 안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뒤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은 자기보다 1년 선배이며 따라서 선배보다도 젊은 사람이 나중에 발표한다는 것은 실례이기 때문에, 15분을 전체에게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늦게 왔을 때 제가 사회자의 자리에서 농담삼아 연령을 따진다는 것은 다른 따질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하는 것이라는 말을 에머슨이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 그와 같은 버릇이 있다고 혼자 얘기처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연령 그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니지요. 물론 자기 은사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그분의 학덕이라든가 실제의 역량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있어서 제자가 버릇없게 묻고 늘어지면 좋게 여겨지지 않지만, 그러나 연령을 초월하고, 선배관계를 초월하고 같은 학교인가, 아닌가를 하는 것도 초월해서 사상자체로서의 중립적인 태도에서 서로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태도가 토착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독일과 일본,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 준하겠습니다만,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고전의 권위를 숭상하고 올바르게 공부한다고 할 때에는 누구를 공부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철학과에 들어와서 철학을 한다고 하면 별로 공부안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칸트를 한다고 이름을 대면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사람을 택해야 하고 특히 그 사람의 사상체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으면 그것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훈련을 받는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편중의 철학 교육방침 그리고 세

미나에 있어서 너무도 어떤 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교육을 받고 그리고 유럽학문 중에서도 독일계통을 한 셈인데, 영국, 미국 사람들하고 접할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의 배경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자들 이름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철학자 이름을 대라고 하면 아마 몇십명이 나올 것입니다. 저의 선배 가운데 어느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철학을 전공하는 학과가 없어서 아마 개론 정도를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학기말 시험에 문제를 하나만 출제했고 그것은 철학자 이름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30명 이상을 쓰면 A학점을 주고 20명을 쓰면 B학점이고, 10명 이하를 쓰면 C학점 이하를 주었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의 이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작품을 예로 들어가며 박식함을 자랑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미국사람들은 'historical underbrush'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historical kunderbrush 라는 말은 우리가 집이나 길에서 볼 때 건물 앞에 잔목들이 쌓여 있어서 곧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빙둘러서 가야하는, 말하자면 담을 쌓는 것 대신으로 심어놓은 짧은 나무들인데, 독일철학에는 그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작품을 읽기 시작하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남들이 한 얘기를 그리고 전기와 같은 것을 알아야만 그사람의 사상을 옳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도 부담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특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 가운데도 후설의 현상학과 같은 것은 비교적 그런 특색이 없습니다. 무전제성이라는 말을 후설 스스로 했고 그리고 역사의 문제는 뒷전으로 제쳐놓고 순수하게 주어진 소여를, 나의 의식에 대립되고 있는 대상만을 출발점으로 해서 사유를 전개한다는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는 그 입문이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카르트 적인 정신을 여기서 재발견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에서 데카르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미국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하고 일맥상통한다는 말을 알렉시스 토끄니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민주주의』를 썼던 1850년대에 미국에 처음으로 와서 미국문화를 관찰하고 돌아갔을 때에, 불란서인이었던 그는—물론 철학의 소양도 상당한 사람이었지만—데카르트적인 정신이 미국에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 침투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자기의 권위, 선생,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무전제에서 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이 구라과로부터 독립되어서 새나라를 건설했을 때에 일반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 방식이 그 철학적인 골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라과사람들이 저질렀던 오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하며,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으니, 우리가 백지상태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독립정신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신, 여기서부터 나중에 발전해서 듀이의 소위 '시행착오'라는 방법론적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스승의 지식을 고수해서 전달하는 것에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자기 자신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여하고 낭비를 하는 한 있을지라도 제 힘으로 끝까지 노력을 해보는 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어야만 자기 몸에 진짜로

스며들고 나중에도 쓸 수 있는 응용가치가 있는 지식일 것이라고 하는 듀이의 철학에 근본전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적인 회의의 정신이 미국 사람들 사고방식에 어느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후설의 현상학을 접했을 때에 무전제성 또는 남들이 말한것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환원시켜서 배제를 하고, 눈앞에 주어져 있는 단선적인 소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태도가 중요시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불란서 문화권은 언어를 토대로 하는 철학적 사고 방식에 있어서는 아마 영국측에도 속하지 않고 독일측에도 속하지 않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불란서에도 콩트와 같은 실증주의자가 있어서 영국사람들이 가졌던 경험, 감각을 매우 존중하는 사상이 상당히 강했던 것도 사실이고 20C 초까지도 실증주의 사상이 불란서에서는 매우 깊었으며, 2차 세계 대전 도중과 그것이 끝날 무렵에는 독일 사람들이 자기나라의 철학을 존중하고 이것을 원본으로서 공부하는 것보다 불란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독일고전과 20C에 있어서의 현상학 내지는 하이데거와 같은 실존론적 존재론에 대하여 열성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이유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철학적으로는 완전히 굴복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르트르를 위시해서 지금의 데리다에 이르기 까지 불란서에서 소위 독일 계통을 자기의 토대로 하고 있는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충실한 해석은 아닙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주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석도 아닙니다. 완전히 환골탈태한 자기 나름의, 자기고유의 사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여기 저기서, 예를 들면 후설, 하이데거, 피흐테, 헤겔과 같은 사람들의 사상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뜯어서 이용하고 있는 것,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볼 때에는 매우 잡편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란서는 독일에서 배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별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심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비해서,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은 비교적 그러한 전통이 과거에서부터 없었고, 따라서 그들의 철학도 어떤 유명한 사상가의 한두개의 근본적인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분석적으로 과학주의적으로 자신들의 학문을 전개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발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매우 느렸고 정확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이데거에 관한 논문, 주석과 같은 것이 3,000편 정도였고, 그리고 후설에 관한 것도 여기에 비교할 만큼 많았습니다. 예를들면 Hans-Martin Sass와 같은 사람이 만든 bibliography는 그 타이틀이 8,000여개가 됩니다. 다만 한국의 것은 아직 번역되는 과정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후설이나 하이데거에 대해서 논문을 한국어로 쓴 것, 주석을 한 것도 샷스교수가 발표한 bibliography에 실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짧은 시간동안에 한 철학자들이 살고 있는 당대에 있어서 이처럼 주석이 확장되는 것이기현상입니다. 주석이 생기게 되는 역사적, 사회적 조건을 들어서 제일 처음에 제가 예로 들었던 것이 그 난해성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지리적으로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언어의 질이나 종류도 달라졌기 때문에 주석의 필요가 생기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동시대에 그와 같이 많은 주석이 생기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아까 예를 들었지만—여섯가지 조건을 그대로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어느 정도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즉 하이데거의 언어가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 신기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27년 그의 「존재와 시간」이 나왔을 때에 그는 마부르크대학에 있었는데, 마부르크대학의 유명한 신크트학과로서 니콜라이 하르트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수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니다. 제자들이 하르트만에게 하이데거교수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내놓았는데 선생님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중국말을 읽을줄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희랍말이라고 하는 만큼이나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국말이라고 하는 것은 난해하고 도저히 모르는 어려운 말을 뜻하는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말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농담으로 그 당시에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하이데거사상에서 노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불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독립된 학회가 생길 정도로, Symposium, 또는 kolloquium이 생길 정도로 하이데거의 사상과 노자, 장자의 사상에 그 유사점 또는 표면상의 유사성이 아니고, 하이데거 자신이 도덕경을 읽고, 장자를 읽고 모를 때에는 옆에 있었던 중국인 교수를 만나서 몇시간이고 진땀을 흘리면서 한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도’라는 말에 ‘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겠는가? 아닌가 하는 것, 중국의 「시경」같은 것을 보면 그러한 귀절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객관적인 것으로 중국말을 모르는 하이데거 본인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존재의 사상, 즉 Logos사상과 노자의 ‘도’의 사상이 접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서투른 번역문을 불태워 버렸다는 얘기를 확인할 길이 없으나, 그 측근에 있었던 Hermann Heos교수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피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닮은 점이 있다고 해서 외부에서 부터 그 닮은 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상당히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하르트만이 말하기를 “하이데거의 중국말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 라는 말은 그 사람 자신의 사상 가운데 중국적인 요소가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국적인 요소라는 것은 문법상으로 볼 때에도 생략법을 많이 쓰고,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특히 노·장의 사상 가운데에 있는 현실 도피라든가, 무위사상에 대해서도 하이데거의 윤리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Manfred Riedel과 같은 교수는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제일 철학은 그의 존재론이 아니고, 기본 존재론도 아니고, 그의 윤리학이다”라고 대담한 명제를 제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이데거가 쓰지도 않았지만, 「인도주의에 대하여」라는 책은 행위, 윤리에 대해서 그나마 약간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것을 하이데거의 윤리학적 사상의 한 표현이라고 하는 해석을 배척하고 있지만 그러한 하이데거에 대해서 리델교수가 윤리사상을 그의 제일 철학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중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은 모름지기 그의 사상 가운데 ‘무위’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화한다는 사상)에 대해서 그가 많이 공격을 했고 파울 샤우라는 중국의 교수와도 이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던 일이

사실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말 자체는 「역경」과 같은 것을 볼 때 그리고 주자학을 본다면, 여기서 양명학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이조에 와서 한국에서 퇴계, 율곡의 논증이 어떻게 보면 주자학에 대한 주석이겠지요. 그런데 그 주석이 독자적으로 스승이 말한 것을 완전히 복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자체를 독자적으로 해석한 면이 있었다고 함으로써 한국의 이조시대의 유학자들이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대만같은데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주석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리는 건너져야 할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그대로 풍덩 물에 빠져서도 안될 것이고, 거기에 그저 계속 머물러 서 있어도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실히 해석하고 원작자의 의도가 무엇이나하는 다리를 건너간 다음에는 말 한마디 한 마디보다는 ‘사상이 무엇이나 하는 것’, ‘문제(issue)가 무엇이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까지 가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철학에 있어서 그것도 현대철학에 있어서 (현대철학은 거의 서구의 철학을 도입한 것인데)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완전히 이해하고 싶어하는 원작을 저술한 학자를 본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이시라와 같은 사람은 아마 그와 같은 자격을 갖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독일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독일철학 중에서도 대표적인 저술, 그리고 영미계통의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거기서 권위가 있고, 남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저술들을 계속 우리가 우리자신의 철학적 정신의 역량으로써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대하는 것은 (서양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저술이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꼭 써야한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과거의 유산에 관하여 완벽한 체계를 세우고, 다음에 거기에서 단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주석이 모를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주석을 필요로 하는 저술은 언제나 완성품이 못됩니다. 난해하고 또는 거기서 일탈된 부분이 있고 단절된 부분이 있고, 단편적으로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 설명해야 하고 이것을 하나의 완전한 산문으로서 우리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로서 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저는 서양철학 전체를 가리켜서 “이것은 플라톤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 이후에 독자적인 저술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까지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평가이고, 플라톤에 대해서 과장 평가를 한 것이 되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중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전으로서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 뿐만 아니라 문학에 있어서도 그리고 법률에 있어서도 신학, 종교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저술이 있습니다. 어떤 저술은 의사가 쓴 것도 있습니다. 희랍이나 로마의, 그리고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소위 자연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단편적인 것이요, 온 자연에 관한 것이요, 인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백과사전적인 문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겨준 것에는 중간, 중간 빠진 구절이 있고 우리에게 완전히 폐쇄된 체계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주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철학자라고만 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식자 또는 현자라고 말했다는 사실에서도 미루어 볼 수 있듯이 주석을 쓸만큼 권위가 있었던 사람들은 확실히 폭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와 같은 분석의 시대에 와서는 폭넓은 의미에서의 원작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석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의 「트락타투스」정도를 기껏 원작으로서 여기며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할 정도로 사랑을 고백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시절에 그것을 상대로 밤을 세워 탐구하고, 밥을 굶어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편애에 가까운 것이지 진정 그 사람의 사상이 백과사전적인 그리고 민족과 종교와 국가, 더 나아가 이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되새겨짐으로써 그 가치가 드러난다고 할 정도로 진정한 고전적인 권위를 가진 문헌은 아마 못될 것입니다.

현대는 그러한 문헌이 고갈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갈되어 가는 시대가 분석적인 시대이고, 기술적인 시대이고, 주체를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있어서 오직 철학 하나만이 고전적인 철학의 개념을 아직도 살려서 횡적인, 백과사전적인 연결을 호모하고 있고 동경하고 있다는 것, 이것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아마 우리는 주석을 할 저술마저도 잃고 말 것입니다.